

5주차

부처의 나라를 만들다

박 미 선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불교식 왕

- 도입
- 왕의 이름에 담긴 의미(뜻)
- 불교식 왕명시대

02. 황룡사와 신라 왕실

- 황룡사 창건
- 황룡사 장육존상과 진흥왕
- 황룡사9층목탑과 신라

03. 백제 무왕의 익산 미륵사 창건

- 설화가 전하는 미륵사 창건
- 사리봉안기에 담긴 미륵사 창건
- 백제 무왕의 미륵사 창건 목적

04. 부처와 인연 만들기

- 전불과의 인연
- ‘부처’ 보살이 머물고 있다

4차시 부처와 인연 만들기

학습목표

- 불국토사상의 개념과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 불국토사상이 끼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내용

- 전불과의 인연
- ‘부처’ 보살이 머물고 있다

전불과의 인연

신라 불교 수용 설화 : <아도본비>

- 신라에 불교를 전한 승려는 아도이며,
어머니는 고도령
- 어머니가 아도에게 신라로 가라고 함

신라 불교 수용 설화 : <아도본비>

- 3천여개월 지나 신라 경주에 불교가 크게
일어날 것이므로
- 왜냐하면 신라 경주에
‘전불시대의 7개 절터’가 있어 불교가
길이 유행하던 땅이기 때문

전불시대 7처가람

① 금교(金橋) 동쪽

천경림[天鏡林:지금의 興輪寺]

→ 신라 최초의 사찰

② 삼천기[三川岐:지금의 永興寺]

③ 용궁(龍宮)의 남쪽(지금의 皇龍寺)

→ 과거 가섭불이 앉았던 ‘연좌석’이

있었다고 함(삼국유사)

전불시대 7처가람

- ④ 용궁의 북쪽[지금의 芬皇寺]
- ⑤ 사천(沙川)의 끝[지금의 靈妙寺]
- ⑥ 신유림[神遊林:지금의 天王寺]
→ 679년 창건
- ⑦ 서청전[婿請田:지금의 曇嚴寺]이다.
→ 신문왕대 창건(?)

분황사

- 7처가람 중 현존하는 유일한 사찰
- 분황사 모전석탑 : 벽돌 모양



분황사



분황사 모전석탑



분황사 조각상



분황사 조각상

분황사

- 선덕여왕 3년(634) 창건
- 분황사(芬皇寺)의 의미 : 향기로운 황제의 절



분황사

‘부처’보살이 머물고 있다

진신상주신앙

- 전불시대: 부처 및 불교와 인연 강조
점차 신라 땅에 부처가 머물러 있다는
인식으로 발전
→ 진신상주신앙

낙산사, 관음보살이 머물다

“ 옛날 의상(義湘)법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와 관음보살[大悲]의 진신(眞身)이 이 해변의 굴 안에 산다고 듣고, 이로 인하여 낙산(洛山)이라고 이름하였으니, 대개 서역(西域)의 보타낙가산(寶陁洛伽山)이 있는 까닭이다. 이것을 소백화(小白華)라고 하는 것은 백의보살[白衣大士]의 진신이 머물러 있는 곳이므로 이를 빌어 이름 지은 것이다. ”

‘낙산’의 의미

- 낙산: ‘보타가산’의 줄임말
- 《화엄경》 입법계품: 관음보살, 해안가
보타낙가산에 살고 있다.

“ [그가] 재계(齋戒)한지 7일째에 좌구(座具)를 새벽 물위에 띄웠더니 용천(龍天)의 8부(八部) 시종이 굴속으로 [그를] 인도하였다. 공중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니 수정염주 한 꾸러미를 내어주므로 의상이 받아 물러났다. 동해(東海)의 용 역시 여의보주 한 알을 바치므로 법사가 받들고 나왔다.

”

“ 다시 7일을 재계하고 나서 곧 [관음의] 진용을 보았다. [관음이] 말하기를, “자리 위의 산정에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날 것이니, 그 땅에 불전을 지음이 마땅하리라”고 하였다. 법사가 그 말을 듣고 굴 밖으로 나오니 과연 대나무가 땅에서 솟아나왔다. ”

“ 이에 금당을 짓고 [관음] 상을 빚어
모시니 [그] 원만한 모습과 고운 자질은
엄연히 하늘이 낸 듯 하였다. 그 대나무는
다시 없어졌다. 그제야 그 땅이 [관음]
진신의 주처임을 알았다. 이로 인해 그 절
이름을 낙산이라고 하고, 법사는 받은 두
구슬을 성전에 모셔두고 떠났다. ”

낙산사 홍련암

-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을 직접 본 곳



낙산사 홍련암

“ 후에 원효법사(元曉法師)가 뒤이어 와서 [관음의 진신을] 보고 절하기를 구하여 당초에 남쪽 교외에 이르니 논 가운데서 흰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벼를 베고 있었다. 법사가 희롱삼아 벼를 달라고 하였더니, 여인이 장난말로 벼가 흉작이라고 대답하였다. ”

“ [법사가] 또 길을 가서 다리 밑에 이르니,
한 여인이 월수건을 빨고 있었다. 법사가
마실 물을 청하니 여인은 그 더러운 물을
떠서 드렸다. 법사는 이를 옆질러 버리고
넋물을 떠서 마셨다. 때마침 들 가운데
소나무 위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불러
말하기를, “제호를 마다한 화상이여”라고
하고는 홀연히 숨어버리고 나타나지
않았다. 그 소나무 아래에 벗은 신발 한
짝이 있었다. ”

“ 법사가 절에 이르니 관음 [상]의 자리 아래에 또 이전에 본 벗은 신발 한 짝이 있었다. 그제서야 앞에서 만난 성스러운 여인이 [관음의] 진신임을 알았다. 이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관음송(觀音松)이라고 하였다. 법사가 성굴(聖窟)에 들어가서 다시 [관음의] 참모습을 보고자 하였으나 풍량이 크게 일어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갔다. ”

- 의상 : 관음보살 상주처 - 열심히 수행/

기도 → 친견

- 원효 : 관음보살,

다른 모습으로 출현- 알아채지 못함

→ 친견 x

■ 왜?

- 의상 중심의 설화 → 제자들에 의해(?)
- 원효 : 제자 없음
- 의상과 원효의 '관음신앙' 다르다

오대산, 문수보살이 머물다

“ 승려 자장이 문수보살을 친견하고자 중국 오대산에 갔다. 문수석상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꿈에 문수보살이 싯구 같은 것을 주었다. 깨어보니 범어여서 어떤 승려가 해석해 주었다. 덧붙여 “그대의 본국 동북방 명주(溟州) 경계에 오대산(五臺山)이 있고, 1만 문수보살이 항상 머물러 있으니 그대는 가서 뵈도록 하시오”라고 하였다. ”

“ 신라로 돌아온 자장은 643년 신라
오대산에 가서 문수진신을 보려했으나
날씨가 어두워 보지 못하였다. 원녕사로
돌아와 문수보살의 뵈는데, 칠평쿨 있는
곳으로 가라 하였다. 그곳이
정암사(강원도 태백)이다. ”

“ (통일) 이후 정신대왕의 두 태자 보천,
효명이 두 사람이 속세를 떠날 뜻을
은밀히 약속하고 아무도 모르게 도망하여
오대산에 들어가 숨었다. 어느 날 다섯
봉우리에 올라 배례하니, 동대에
관음보살이, 남대에 지장보살이, 서대에
아미타불이, 중대에 문수보살이 진신을
드러냈다. ”

《삼국유사》권3 탑상4 대산오만진신



상원사 대웅전
성덕왕이 진여원을 설치했던 곳

- 성덕왕 : 진여원 설치

← 문수보살이 나타난 곳

- 보천 : 오대산 각대에 승려를 두고 염불과

독경할 것 권함

그러면 ‘국왕이 천추를 누리고 백성은 평안하고

전쟁이 없고, 백곡이 풍요할 것이다.’

→ 부처가 신라 국토와 신라 사람을 보호한다.

천관산, 천관보살이 머물다

천관산

- 전라남도 장흥군 천관산, 일명 지제산
- 《화엄경》: “동남방에 지제산이 있으니
옛적부터 천관보살이 제자 1천을 데리고
법을 설한 산이다.”



천관산

경주 남산

■ 경주 남산

- 남산 : 경주의 중심 산
- 남산 기슭 : 나정 (시조 혁거세의 탄생처)
- 헌강왕 때 남산의 신이 나와 춤을 춤

: 신라 멸망 경고

남산 : 신라의 시작과 끝

→ 불교 공인 이후에 불교유적지로 탈바꿈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아래 백성들이 사는 세상을 내려다 보고 있다.

불국토사상

- 전 국토에 보살·부처가 머물러 있다.
- 부처의 보호를 받고 있다.

낙산사
관음보살
강원도 양양

오대산
문수보살
강원도 영월

천관사
천관보살
전남 장흥

불국토사상

- 신라 국토에서 변두리
- 국토 개발의 역할
- 지방, 지역에 대한 인식

정리

- 삼국의 왕들 :

‘전륜성왕’임을 강조,

불교식 왕명 사용 → 왕권 강화

정리

- 황룡사 : 신라 왕실의 대표적 사찰
 - 황룡사, 장육존상 - 진흥왕
→ 전륜성왕임을 과시
 - 황룡사9층목탑 - 선덕여왕
→ 외적 방어

정리

- 백제 무왕 : 익산 미륵사 창건
 - 창건한 왕비를 둘러싼 논란
(선화공주, 사택적덕 딸)
 - 수도가 아닌 ‘익산’에 창건
 - 미륵하생신앙
- 무왕 = 전륜성왕

정리

■ 불국토사상

- 전불과의 인연(=7처가람) :
경주에 집중
- 부처 ‘보살이 신라에 머물고 있다’
(=진신상주) : 지방
→ 국토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도 영향

[출처01]박미선 개인소장

[출처02]박미선 개인소장

[출처03]박미선 개인소장

[출처04]박미선 개인소장

[출처05] 문화재청

<https://www.heritage.go.kr/heri/cul/imgHeritage.do?ccimId=6858817&ccbaKdcd=31&ccbaAsno=00360000&ccbaCtcd=32>

[출처06] 문화재청

<https://www.heritage.go.kr/heri/cul/imgHeritage.do?ccimId=1660342&ccbaKdcd=31&ccbaAsno=00180000&ccbaCtcd=32>

[출처07] 문화재청

<http://www.heritage.go.kr/heri/cul/imgHeritage.do?ccimId=6278137&ccbaKdcd=15&ccbaAsno=01190000&ccbaCtcd=36>

REFERENCE

김복순, 고려시대의 황룡사 -황룡사 강당의 설법단과 강경법회를 중심으로-, 신라문화연구소, 신라문화(50), 2017

이내옥, 미륵사와 서동설화, 역사학회, 역사학보(188), 2005

강종원, 백제 무왕대의 정국변화와 미륵사 조영, 백제문화연구소, 백제문화(54), 2016

박광연, 신라 중대의 정불국토(淨佛國土) 인식과 의미, 불교문화연구원, 불교학보(68), 2014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C

기획·조정

이진형·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